큰 삶, 작은 삶, 충만한 삶

(이사야 52:1~15)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큰 삶, 작은 삶,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큰 삶, 작은 삶, 충만한 삶'

요즘 '휘게(Hygge)'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는 걸 보았습니다. 휘게는 덴마크어이자 노르웨이어로써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휘게 라이프와 동일한 표현으로써 '소확행(小確幸)'이라는 말이 쓰인다고 합니다. 소확행은 '소소한 일상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야망의 삶입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휘게 라이프 즉 소확행의 삶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반대 스타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삶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모두 마음의 충만감 즉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비전과 야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자도 결국은 충만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충만감을 얻어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경우가 모두 실제로는 충만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확행의 삶에 대해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 것, 오

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휘게 라이프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옷을 입고 영화를 보는 것, 차를 마시며 창밖을 구경하는 것, 휴가를 떠나서 가족들과 모닥불 앞에 둘러앉는 것"등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질까요?
안락의자는 편하게 앉을 수 있어서 안락의자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곧 몸이 쑤시고 지루해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다 집에 돌아오면 안락의자가 아닌 딱딱한 마루에 누울지라도 안락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보았던 소소한 행위들을 할 때에 잠시나마 기분이 좋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감히 행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소확행이나 휘게 라이프는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돌진하는 삶에 대한 반발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좇는 삶에 행복이 없었으니 지금을 즐겨보자는 반발 심리의 표출인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만감의 신비를 알아야만 합니다.

'충만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채워짐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삶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소확행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아침에 막 구운 따끈한 빵을 먹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앞선 사람은 큰 야망으로 채우려 했고 뒤의 사람은 소소한 기쁨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이것으로는 충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강릉을 찾아오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분들이 바다를 보면 하나 같이 '와' 소리를 내시며 감탄하십니다. 이 '와'하는 소리가 충만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과 빌딩과 자동차로 북적거리던 속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보니 오히려 충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와'하는 감탄도 기껏해야 1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바다가 있었냐는 듯이 마음은 다시금 삶의 복잡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다가 마음을 순간적으로밖에 채워주지 못하는 이유는 비워짐은 있지만 채워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빌딩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도심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미래를 향해 달려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새 와이셔츠를 입을 때의 정갈한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와이셔츠를 한 번 입고 버리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분

은 해당이 없습니다. 매일 새 와이셔츠를 입지만 거기서 행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해보겠다는 생각은 바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야망이나 큰 꿈을 쫓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으로써 일시적 감탄이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충만함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포로 해방의 예언이 이루어지며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언급됩니다.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복된, 구원, 아름다운' 등의 말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음은 야망처럼 내가 전진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큰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큰 만족과 작은 삶에서 중시하는 것이 지금 내게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야 진정한 충만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값진 것, 정말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결국 복음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의 충만함이 강조됩니다. 본문의 포로 된 자들이 해방되는 사건을 상징으로 삼아 메시아를 통해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삶은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큰 삶이나 작은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진짜 충만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에 마음은 충만해지고, 이제까지 내가 이끌어가고자 했던 삶도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끌어온 삶도 충만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충만했다는 점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태초의 무(無)의 상태입니다. 채워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충만함을 기대했기에 마음은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어둠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앞으로 달려 나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삶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지금을 중시해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진정한 행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막 구운 따끈한 빵을 먹으면서 즐거울 수 있으려면 이미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 모닥불 앞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공허한 마음 상태에서는 이 행복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야만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면 진정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과 삶의 이중 충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앞서 도심에 살던 분들이 바다를 보면 일시적으로 나마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빌딩과 자동차와 일로 가득 찬 공간이 비워질 때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메시아가 이루실 복음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 마음에서 세상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밀착되어 있는 세상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 없이 뻗은 바다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일시적으로나마 충만해지는 이유는 그것을 보는 동안이나마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세상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충만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이것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은 세상과 붙어 있습니다. 가족이 붙어있고 직장이 붙어있고 많은 생각들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대상이든 추상적인 관념이든 내 마음에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바다나 하늘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담겨졌던 세상이 잠시나마 없어지며 일시적인 만족을 얻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음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 것들이 할례를 받아 잘라지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조물주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만 입니다.

그리고 14~15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창조 된 이래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이 나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할례가 이루어지면 마음에서 세상은 잘라져나갑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길을 따라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사야는 7절에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언어들로 이 황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삶에도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랩을 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노래할 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은 세상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이루게 됩니다.'라고 충만한 자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마음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달라붙고 돈도 달라붙습니다. 육체로 인해 달라붙게 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비워져야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판단이 육체로 대하는 대상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가진 인간은 육체로 대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업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음에 달라붙은 사업을 잘라내는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뜻과 생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할례가 행해졌고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돌로 치는 자들을 마음에 담았을 것이고, 그들이 멈추기만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정한 마

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청결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계셔야 할 장소이기에 세상 것들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담길 때에 마음도 세상 것들로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더러움의 상태에서 큰 삶을 살아보고자 하여도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안 되자 작은 삶으로 행복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그 역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 구운 따끈한 빵을 먹어도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최면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질 수 있는 크기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막 구운 빵을 먹고 브람스의 음악을 듣고 창문 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본다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야망과 비전으로 뛰는 삶에 대한 혐오감과 반성으로 인해서 작은 삶으로 인해 마음이 채워졌다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 마음에서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이야 말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할 요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마음이 될 때에 이 땅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과 행복감으로 관계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조각 빵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세상 것으로 부정해진 마음이 갓 구운 빵을 먹고 새로 산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갓 구운 빵이나 새 와이셔츠나 브람스의 음악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며 할례를 행해서 세상과 결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결별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또한 복된 소식이며 말로 표현 못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생활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써먹지 못하는 삶이야 말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굳이 큰 삶을 살아서 행복하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작은 삶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억제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오히려 큰 삶과 작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조물주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 기껏 빵 한 조각에서 행복을 찾아보겠노라고 시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작은 빵에도 기뻐할 수는 있지만, 작은 빵으로 기뻐함을 통해서 인생에 행복을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구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망 넘치는 큰 삶도 착

각이지만 휘게 라이프든 소확행의 삶도 큰 착각입니다.

충만은 지금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는 기쁨거리 행복거리 충만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이 세상을 대하여 할례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 내게 다가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야망이나 비전이 없이도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삶이든 작은 삶이든 십자가로 중단하시고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이루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내게 다가오시는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